

鬱 寂

처음 피워본 담배맛은

아침까지 목앞에서 간질간질 타.

어제밤에 하도鬱寂하기에

가만히 한대피워 보았더니.

一九三七、 六、

울 적

처음 피워본 담배맛은

아침까지 목 안에서 간질간질 타.

어젯밤에 하도 울적하기에

가만히 한 대 피워 보았더니

1937. 6.